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반영해 수가 차등적용

필수 지정기준 충족 10곳 중 9곳 ... 미충족 기관 행정조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증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총 401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이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이 부여된다.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내국인 공표 등에 활용된다.

2018년 주요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

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간-응급실내원시간)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문의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한편 정부는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36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료수가 저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인사

강원도 태백시보건소 김미영 소장

강원도 태백시보건소 소장에 김미영 보건행정담당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7월 1일자.

김미영 소장은 1989년 안동과학대를 졸업했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황성군보건소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태백시에서 위생계,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등을 두루 거쳤으며, 태백시보건소에서 보건행정담당 등을 지냈다.

김미영 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맡겨진 업무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직원 간 소통하면서 즐거운 조직을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가 주민들에게 파급돼 활기찬 태백도시 태백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전남 화순군보건소 김인아 소장

전남 화순군보건소 소장에 김인아 화순군 생활보장팀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7월 31일자.

김인아 소장은 1986년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공직에 입문해 화순군보건소에서 근무했으며, 예방의약팀장 등을 지냈다. 화순군 복지조사팀장, 생활보장팀장 등을 지냈으며, 화순군 동북면사무소에서 총무팀장을 역임했다.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최유주 기자 yjchoi@

국간사, 고교생 대상 '한나에 캠프' 개최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 권명옥 장군)는 전국 고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로탐색을 위한 '제3회 한나에 캠프'를 8월 5일부터 2회에 걸쳐 1박2일간 진행했다.

한나에는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의 졸업말로 국간사 생도의 애정이다.

캠프에서는 군 간호교육체계를 체험하고, 국가의 위기와 각종 재난상황에서 간호장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등 미래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역사관 견학, 생도와 함께하는 진로설계, 야전 군간호 훈련, 간호실습실 견학 등도 진행했다.



특히 국간사 생도들이 멘토로 참여해 진로상담과 생활지도 등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 수료식에는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캠프에 참가한 장연우(문산여고) 학생은 "평소 간호사관생도가 되고 싶어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학교에서 생활하고 실습해보니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생명 나누는 조혈모세포 기증 "내 인생에 찾아온 고마운 기회"

6년 전 나는 입원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고, 그곳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났다. 골수(조혈모세포)이식을 제외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이틀에 한 번 팔로 수혈을 받는 분이였다. 수혈로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다량의 수혈로 인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명절로 인해 휴일이 길어질 때는 수혈할 혈액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홍진수 장문위튼병원 내시경실 팀장

수혈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환자분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한 인품으로 내게 많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신 분이였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른 환자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헌혈을 하려고 집 근처 혈액원을 찾아가고, 그 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게 됐다. 비록 나의 환자분은 기증자를 찾지 못했지만, 만약 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기증등록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 뒤로 기증 대상자를 찾았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러한 기억은 서서히 잊혀졌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기증 가능한 환자가 있다는 소식이 왔다. 당연히 기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락했지만, 사실 살짝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결정이 한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했다.

기증을 위해서는 내 몸이 기증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검진, 이후 적합한 공여자라 판단이 되면 기증 일정을 잡고 채혈하기 전 채질할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한 주사 투여,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하는 날이 되면 입원해 4~5시간 정도 성분헌혈을 하듯 채혈을 하는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말처럼 단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과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세상에는 기적이란 것이 있음을 또 한 번 느꼈다. 하루하루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여 기증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기 바란다.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종병원 진재옥 외래간호부장, SCI급 저널 논문 게재



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환자안전 역할을 구성하는 데는 임상경력,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팀워크가 주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재옥 외래간호부장은 "간호학생 또는 원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팀워크를 위해 부서장과 부서가 노력할 때 간호사의 환자안전 역할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게시판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소장 김정은)는 2019년 학술대회를 '간호과학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주제로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대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개최한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인재' 기조강연 및 'Big data and data science in nursing' '공공데이터의 제공 현황 및 성과와 미래 방향' 등 주제강연, 9월 20일까지 사전 등록 및 논문초록 접수.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rins.snu.ac.kr) 참조. 문의 02)740-8839 또는 이메일(jinmeiling04@snu.ac.kr).

한국아동간호학회 간호사 국시 문항개발 워크숍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안영미)는 '2019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 선택형 문항개발과 평가방법 워크숍'을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과 공동으로 8월 14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시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문항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조별로 나누어 선택형 문항을 직접 개발해 발표하고, 전체 참석자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영미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좋은 문항개발을 위한 원칙과 실무, 전략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c@

31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보건교사 특강

최신 동영상 강의 수강신청 및 접수중



노성인
기초간호학과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3인의 전공·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